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 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저장성 항저우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V )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16.09.17~17.01	기타비용	한 달에 약 40만원

##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7. 01. 20.

파견자 :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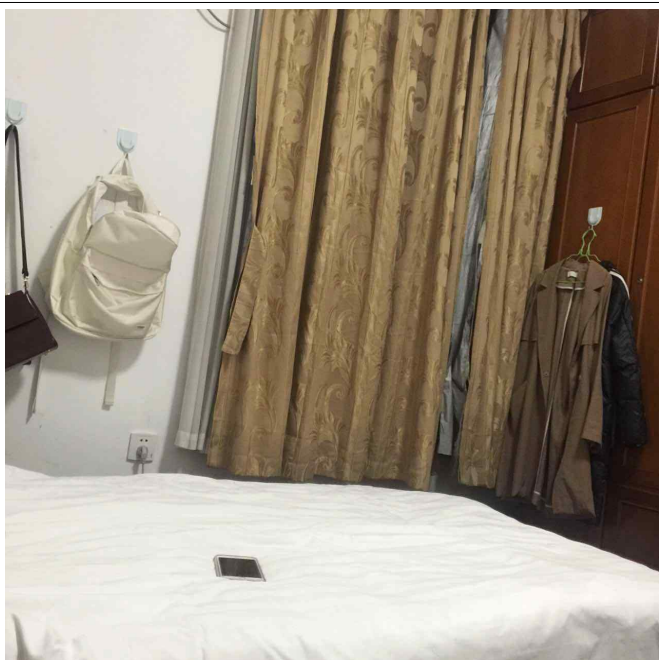
##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0시 30분 이전에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하지만 기숙사 내에는 규정이 없는 편이다.		
주위사항	정해진 귀가 시간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외출금지가 생길 수 있다.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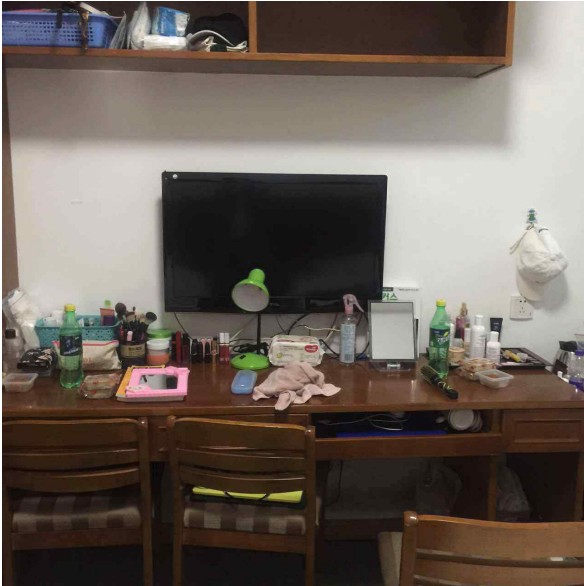
기숙사는 2인 1실, 혹은 1인 1실로 배정 받으며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들끼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예전에는 룸메이트가 중국 학생이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한국 학생들끼리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장 경찰대에는 한국인이 우리학교 학생들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국인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빠르고 오히려 생활하는 것이 편하기도 했던 것 같다.



복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 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다. 가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주방에서 파티를 벌이곤 하는데 그 친구들과 친해져 파티에 참여하는 것도 색다른 추억이 되고 매우 재미있다. 나는 주방 바로 옆인 3219호를 썼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다 흘러들 어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다. 하지만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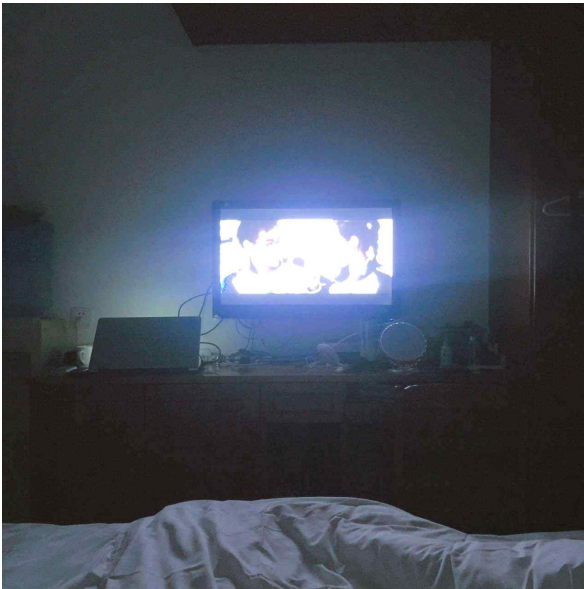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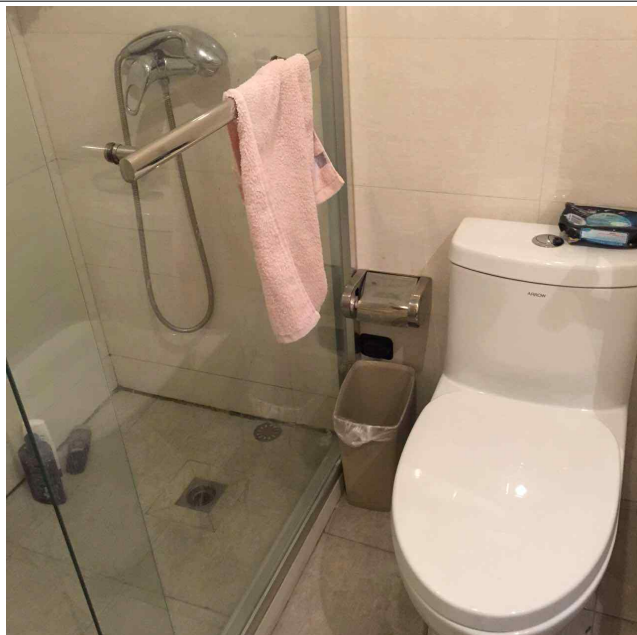


환풍기를 켜두고 화장실 문을 닫으면 냄새가 화장실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정수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증금 60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데 그건 꼭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정수기를 뺄 때 영수증을 다시 내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물은 큰통에 7원으로 매점에서 1.5원씩 하는 작은 병을 한병씩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꼭 해두는 것이 이득이다.



방에는 티비가 한 개씩 있는데 컴퓨터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나 명절 같은 때에 컴퓨터와 티비를 연결해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냉방이 같이 되는 에어컨도 방마다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지만 겨울에는 그다지 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 전기장판을 사서 항상 끄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또, 에어컨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낮으로 계속 틀어두기 때문에 원래 피부가 건성이 아니



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건조함을 느낄 수 있다. 씻고 나와서 꼭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화장실은 샤워실과 변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샤워실이 유리막혀있기 때문에 물에 다 젖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화장실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다. 쓰레기통도 매일 아침 비워주시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귀찮거나 신경쓰이는 것은 없다. 방의 쓰레기 통도 같이 비워주시고 이불의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아주셔서 깨끗이 생활할 수 있어 좋았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우선 학교에 도착하면 선생님들과 간단한 면담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반을 나누게 된다. 수업을 듣다가 너무 쉬울 경우 시험을 통해 반을 올라갈 수 있고, 너무 어려울 경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반을 내려갈 수 있다. 각 반의 수업은 그 반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나뉘지며, 책은 베이징외국어 대학교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며 학교에서 배부한다.

수업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듣는 문화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 있고, 문법, 듣기, 말하기 수업은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과 함께 듣게 된다. 하지만 이 학교 자체에 유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선생님들은 저장대학교 학생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수업과제는 적은 편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주시기 때문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한 번 더 복습해 볼 수 있다.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친해지기 편하며 중국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면서 중국어를 조금 더 빨리 늘릴 수 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저장경찰 대학교는 중국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매우 따뜻하다. 9월 중순에 왔지만 11월 초까지는 반팔을 입었고, 12월에도 날이 따뜻하면 반팔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완전히 따뜻하기만 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옷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좋다. 습한 곳이므로 추울 때에는 물이 서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같은 기온보다도 훨씬 춥게 느껴진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만 가면 시후가 나오고 기차를 타면 두 시간 빠르면 한시간만에 상해에 도착할 수 있다. 시후 주변에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 다녀오는 느낌으로 놀러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술집이나 식당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게 노는 것은 조금 힘들다. 학교 뒤편의 라지지에에는 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가며, 조금 더 멀리 가면 다른 식당가도 나온다. 학교의 학식은 매우 싸고 맛도 괜찮은 편이다. 그중 마라탕은 한국학생들 입맛에 잘 맞는다.

학교 주변에는 마트가 두 개 있다. 하지만 그 외의 편의시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 은행을 가기 위해서는 거의 30분을 걸어 가야하고, 이곳에 한 학기나 살았지만 편의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 매점에 물건도 많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세탁실은 기숙사 옆 건물에 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로비에 계신 분들에게 세탁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드리면 세탁실의 열쇠를 주신다. 세탁실은 6층과 7층에 하나씩 있고 각 층마다 세탁기는 두 개씩 준비되어 있다.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로 세탁이 잘 되는 편이다. 세탁기는 그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과 유학생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쓰지 않는 시간을 알아봤다가 그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전에는 사전 준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하다. 특별한 예약은 아니고 그냥 좌석예약 정도인데 한번에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한다. 사용가능한 층은 3,4층이지만 예약을 했다면 2층도 사용가능하다. 3,4층은 도서관의 느낌이라면 2층의 공부하는 곳은 독서실의 느낌으로 조금 다르다. 원하는 분위기를 고를 수 있어 좋은 것 같았다.



학교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도 작은 편이다. 메뉴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마라탕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학교 음식들에 거부반응이 든다면 마라탕을 추천하고 싶다. 여기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식당 안에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간다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나는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여행을 다닌다거나 돌아다녀보지 않았던 나에게 중국은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다. 내가 있는 저장성이 거의 우리나라만하다고 하니 말이다. 사실은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나의 목표는 중국어를 현지인처럼 잘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와서 얼마동안을 지내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언어는 정말 금방 느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교환학생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이 아니다. 다녀온 여행이라고는 상해여행 한번 뿐이었고, 항저우 안을 열심히 돌아다닌 것 뿐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비록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여행하며 넓은 중국을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좁지 않은 항저우 안을 구석구석 구경했고 느껴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의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봤을 때 아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한학기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 때는 다른 곳도 많이 여행하고 싶다. 중국을 여행하기에는 일 년 역시도 너무 짧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 항저우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다면 꼭 좋은 중국인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싶다. 항저우는 깊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완벽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도 중국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추천도 많이 받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 그 친구 덕에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경찰대학교는 학생들이 한주에 한번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시간을 우리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에 나가서 놀다는 것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덕에 좋은 곳을 많이 가보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뿐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어쩌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인생에 다시 없을 추억을 만드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온 근본적인 목적인 중국어 공부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목적을 잊고 노는데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저장 경찰대학교에는 한국인이 우리 학교 학생들 뿐이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인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매일같이 한국인 친구들과 붙어다니며 놀게 되면 중국어는 절대로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 추억을 만들기에라도 한번 뿐인 기회이지만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에도 어쩌면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